

제12차 한·미 방산협의회 열려

한·미 양측 방산분야 협력방안 모색



이날 회의에서 이수의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금년은 한·미 동맹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50년간에 다져진 성과를 보다 높은 단계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하고, “매년 한·미 양국을 오가며 실시하고 있는 한·미 방위산업협의회도 양국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반세기에는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한·미

양국 방산업체의 방산협력 방안 모색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산협의회(DICC)가 한국측 이수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미국측 DeFrancisco 록히드 마틴 부사장을 공동 의장으로 한·미 방산협의회 위원 및 정부 관련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0일 홀리데이 인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방산협의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가 미국방위산업협회(NDIA)와 함께 양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업체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94년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코리아 에어쇼 2003)에 맞추어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Mr. Ben Stone 미국방산협회 이사의 「2003~2004년도 미국방산협회 최우선과제결과/계획 발표」, Dr. Stephen Piper PPI사 사장의 「제3국 수출 승인 절차 현황 발표」,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연구센터장의 「한국의 안보진단 및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발표」, Taylor Chasteen JUSMAG-K 중령의 「양국 국방부 간 군비협력 현황 발표」, 김민 방진회 대리의 「한국의 획득 계획 및 KMH사업 현황 발표」, Joe Song Boeing 한국 지사 부사장과 Steve Tagariello GE사 부장의 「한국의 항공우주/방산 사업환경 발표」, John Ward LM M&FC 사 부사장의 「한국의 사거리확장로켓 면허생산사업 소개」, Jon Knapp Boeing사 과장의 「F-15K 사업 현황 발표」의 주제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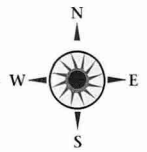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신궁’ 시험 평가 성공

90% 명중률로 스팅거와 이글라 훨씬 능가

국방

과학연구소가 LG이노텍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국내 독자모델로 개발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新弓)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신궁은 한국군의 체형에 맞도록 작고 가볍게 설계됨으로써 현재 군이 해외에서 도입하여 배치 운용 중인 다른 무기체계보다 병사들이 더욱 간편하고 수월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격시험을 통하여 어떤 유사무기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임이 입증되었으며 곧 군에 배치되면 군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도입장비는 정비유지와 성능개량을 해외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국내기술로 독자 개발한 신공은 효율적인 정비유지와 적시의 성능개량을 모두 국내 기술로 수행할 수 있어 최상의 전력유지가 항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비획득 및 운용유지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휴대용 대공 유도탄은 국내 소요량이 많고 해외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공의 성공적인 개발로 국내 방위 산업 활성화와 외화절약 등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 유도무기 수출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원

발 사 형 식	2-stage	
유 도 방 식	2Color 1R 호밍	
길 이	미 사 일	168cm
	발 사 튜브	187cm
무 게	미 사 일	14kg
	발 사 튜브	19.5kg
탄 두	HE 충격 및 근접신관	
추 진 방 식	Dual Thrust Rocket Motor	
최 대 사 거 리	7,000m	
최 대 고 도	3,500m	
최 대 비 행 속 도	마하 2.1	
플 렛 폼	휴대용, 차량, 함정, 헬기 탑재	

신공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적외선 탐색기와 소형·경량화 관련 첨단기술은 대전차 유도탄과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국내 개발에 핵심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KDX-II 3번함 대조영함 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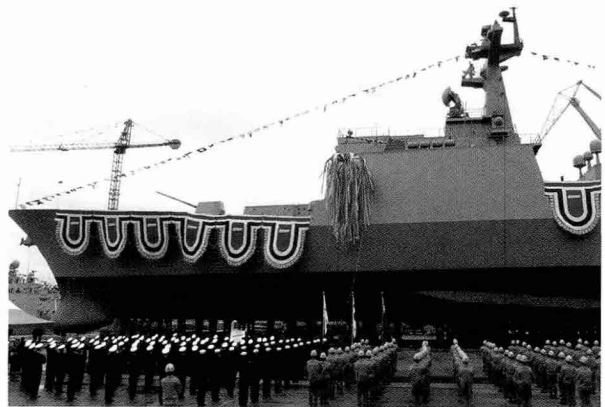
SM-II 및 RAM 대공미사일 탑재로 구역대공방어개념으로 발전

대공, 대함, 대잠 임무수행이 가능한 국내 최대 4천5백톤급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이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 건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1월 12일 옥포조선소에서 조영길 국방부 장관,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관계자와 프레드 바이어스 한미연합사 주한 미해군 사령관, 정성립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규모인 4천5백톤급 KDX-II 3번함인 '대조영함'의 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진수된 '대조영함'은 대양해군을 향한 한국 소유의 본격적인 대형 구축함으로 상세설계와 건조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기술로 수행했다.

'대조영함'은 길이 149.5m, 깊이 9.5m, 폭 17.4m로 승조원 200여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29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 또한 5인치 주포 1문과 일명 '골키퍼'라 불리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Close In Weapon System), 대함·대공 유도탄,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공·대함 레이더와 수중탐지 음탐기를 갖추고 있다.

‘대조영함’을 포함한 KDX-II 구축함은 美 해군 등 선진해군에서 사용하는 SM-II 및 RAM 대공미사일을 탑재하여 함 방어위주의 대공 방어에서 구역대공 방어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함정 선체에 스텔스 기법을 도입, 전자파 및 적외선, 소음 등으로부터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 적의 생화학 공격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함정의 생존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5인치 주포 및 대잠헬기인 슈퍼링스(Super Lynx)를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함으로써 지상작전의 지원과 더불어 대잠전 등 전방위 전투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올해로 창설 58주년을 맞은 해군은 우리의 국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력에 걸맞고, 급변하는 미래의 해양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익과 국가안보를 지키고자

1990년대부터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사업(KDX: Korea Destroyer Exercise)’을 추진해 왔다.

KDX 사업은 해군의 현존전력에 대한 전투 효율성을 보장하고 미래 핵심전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극대화하는 해군의 전력증강 사업으로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1단계로 1998년 KDX-I 1번함인 ‘광개토대왕함’을 포함하여 3,000톤급 3척을 확보, 이미 실전에 배치하였으며, 2단계인 KDX-II는 4,500톤급 구축함인 ‘총무공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문무대왕함’과 이번 ‘대조영함’까지 시험운용 과정을 거쳐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7,000톤급 KDX-III 사업은 지난해 7월 이지스(Aegis) 체계를 함정 전투체계로 확정하였으며, 2008년 1번함을 확보하게 되면 명실공히 대양해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국과연, 국방연구개발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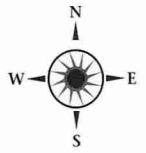
국방연구개발 체제 혁신과 국과연 역할과 발전방향 도출



국방 과학연구소는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을 구현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국방연구개발체제에 대한 포럼을 국방부 차관 주재로 11월 19일 육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광범위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박용득 국과연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으로 국방부에서는 국방획득 패러다임을 국내개발/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개발에 비중을 두고 획득체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비의 점진적 증액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과연도 과학기술발전의 속도, 민간업체의 개발능력 향상, 산학연 연구협력체제 강화, 연구소 자체인력 증원한계 등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연구개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보선 국방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자주적 역량을 갖춘 국방건설을 목표로 분야별 국방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적 국방역량 구축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의 개혁과제로 ‘연구개발 정책 검토 및 발전’, ‘방위산업 정책 검토 및 기반강화’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체제의 혁신방안과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산업체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대혁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1부에는 송근호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의 사

회로 「국방연구개발 체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이상진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유병구 공군 교육사령관의 진행으로 김영수 전 국과연 부소장과 이창수 LG이노텍 대표이사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부는 조태환 경상대 교수의 사회로 「국과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김호권 국과연 부소장과 김철환 국방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채우석 조달본부 차장의 진행으로 박태진 삼성탈레스 대표이사, 박준호 이오시스 템 부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2003년 국방품질보증 학술세미나 개최

“전순기에 걸친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방안” 모색



국방 품질관리소는 11월 4일 국제회의실에서 국방부, 육·해·공군 및 관련기관, 방산·군수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순기에 걸친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2003년 국방품질보증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관별 주제발표에서 품관소 조윤기 박사는 「배치/운용 단계에서의 무기체계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 기초자료 및 군수 정보체계 기초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

며, 국방과학연구소 최충현 박사는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의 신뢰성 향상방안」이란 주제로 개발단계에서의 신뢰성 향상 대안을 발표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손미애 박사는 「M & S(Modeling & Simulation)의 활용을 통한 무기체계 신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석철 국방대학교 교수는 「획득관리에서의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획득 정책기관, 개발/사업관리기관 및 사용자군이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추진해야 하는 방안과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어 손소영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 IT 시대의 신뢰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서완석 박사는 「군위성통신체계 RAMS 공학을 통한 개발신뢰성」이란 주제로, 권순범 품관소 책임연구원은 「부품·소재류 신뢰성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한상철 로템 책임연구원은 「장비 운용품질 신뢰성 분석 및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